

〈한국간호윤리학회 세미나〉

칸트 윤리와 간호 윤리

2019. 6. 15.(토)

박 찬 구

(서울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)

1-1) 칸트 윤리의 현대적 의의 (1/3)

1) 자연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

- 과학적 방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
- 현대는 여전히 근대 과학 문명의 시대
⇒ 어떤 이론이든 일단 과학의 언어로 설명되어야 설득력 지님
- 칸트 윤리학은 과학 세계의 경계선, 즉 현상계의 한계에서 시작됨
- 칸트 자신이 <실천이성비판>의 작업을 <순수이성비판>보다 중시했음에도 오늘날 후자가 더 주목받는 이유 ⇒ 현대는 아직도 자연과학의 시대, 왜 칸트 철학의 영향력이 여전한지

1-2) 칸트 윤리의 현대적 의의 (2/3)

2) 우리 전통윤리와의 유사성

- 유학의 우주론과 인성론의 기본 틀과 통함
- 중용(中庸) 제1장: “天命之謂性, 率性之謂道, 修道之謂教” [性→자유/양심; 道→도덕법칙]
- 천도(天道) ≡ 도덕법칙, 인도(人道) ≡ 준칙
- 存天理[도덕법칙] 去人欲[경향성]
- “見利思義” (『論語』, 憲問편)
- “何必曰利, 亦有仁義而已矣” (『孟子』 梁惠王章句上)
[利→경향성, 義→도덕법칙]
- 유교 윤리와 칸트 윤리의 형이상학적 토대 유사

1-3) 칸트 윤리의 현대적 의의 (3/3)

3) 현대 도덕적 질병에 대한 처방

- 현대는 도덕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횡행
- 전통적 가치관과 윤리는 급속히 붕괴,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는 미정착
- 자본주의 경제 ⇒ 이기주의, 금전만능, 물질숭상 풍조 만연
- 문화적 다원주의 ⇒ 가치 상대주의, 도덕적 회의주의 만연
- 강력하고 보편적 호소력 지닌 윤리학 필요
⇒ 칸트 윤리는 오늘날 윤리 재건의 출발점

2-1) 의무론과 목적론

	목 적 론	의 무 론
특징적 경향	현실주의	이상주의
궁극 목적	행복한 삶	의로운 삶
진리 인식 방법	경험적 (귀납법)	이성적 (연역법)
주요 관심	목적의 성취 / 일의 효용성	올바른 절차 / 정당한 원칙
대표 이론	공리주의	칸트 윤리

2-2) 선의지

- “이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도 무제한적으로 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. ...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, 또는 이미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, 오로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일 자체로 선한 것이다.” (<도덕형이상학 정초>, BA1)
- **동기주의:** 행위의 선·악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 행위를 낳은 의지일 뿐
- 행위의 결과란 우리 의지의 힘 외에 수많은 외적 변수와 우연에 의해 좌우
⇒ 도덕성의 척도 될 수 없음
- 선의지만이 도덕적 선의 유일한 근거

2-3) 의무

- ‘의무’ ⇒ 어떤 것을 ‘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’ 쓰는 말
- 선의지는 ‘인간의 유한성’이라는 조건 때문에 의무의 형태를 띠게 됨
- 신(완전히 선한 의지를 지닌 존재) ⇒ **의무X**
동물(이성적 능력이 결여된 존재) ⇒ **의무X**
인간(선의지 + 경향성) ⇒ **의무○**
- 의무 ⇒ 경향성의 유혹을 이기고 선의지 쪽을 따라야 한다는 의식

2-4) 도덕법칙과 정언명법 (1/7)

※**경향성**: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능적 속성들(식욕, 성욕, 이기심 등의 다양한 욕구)

- 경향성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한다면, 이때 행위의 동기는?
- 어떤 행위를 하고자 결심할 때 따르는 주관적 행위 원칙 ⇒ **준칙**

(※**준칙**: **개별** 행위자가 따라야 할 **주관적** 원칙)

(※**법칙**: **모든**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**객관적** 원칙)

- 어떤 준칙이 우리가 따라야 할 준칙일까?

2-4) 도덕법칙과 정언명법 (2/7)

- 칸트의 답: ‘보편화 가능한’ 준칙!
-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준칙
- 우리의 자문: “나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으로 (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)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나는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가?”
- 도덕법칙? ⇒ “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하라!” ⇒ 첫 번째 정언명법

2-4) 도덕법칙과 정언명법 (3/7)

- 도덕법칙의 자명성
- “도덕과 관련된 일에서 인간의 이성¹은 아주 평범한 사람조차 매우 쉽고 정확하게 [옳고 그름에 대한] 판단을 내릴 수 있다.” (<도덕형이상학 정초>, BA XVI)
- “도덕법칙은 순수 [실천] 이성의 사실로서 주어져 있고,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의식하며 절대적으로 확신한다.” (<실천이성비판>, A81)
- “그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, 그 객관적 실재성은 그 자체로 확실하다.” (<실천이성비판>, A82)
- 도덕적 행위의 동기 ⇒ ‘법칙에 대한 존경심’
- “객관적으로는 법칙, 주관적으로는 이 실천적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²뿐” (<도덕형이상학 정초>, BA15)

2-4) 도덕법칙과 정언명법 (4/7)

- 도덕법칙의 기능:

- 도덕법칙은 우리의 준칙이 과연 보편화될 수 있는지, 즉 그것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보는 틀(형식)
- 도덕법칙의 기능은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
- 행위의 목적을 염두에 두게 되면 으레 자기애나 자기 행복의 동기가 개입하기 마련

2-4) 도덕법칙과 정언명법 (5/7)

- 선의지와 도덕법칙

- 선이란? ⇒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
- 선의지란? ⇒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

- 경험주의 윤리: 선 ≡ 행복(快), 악 ≡ 불행(苦)

- 칸트 윤리: 도덕법칙을 통해 비로소 선·악을 규정함

“선악의 개념은 도덕법칙에 앞서서가 아니라, (얼핏 보면 이 개념이 도덕법칙의 기초에 놓여야 할 것 같지만) 오히려 도덕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도덕법칙에 의해서 규정될 수밖에 없다.” (<실천이성비판>, A110)

2-4) 도덕법칙과 정언명법 (6/7)

- 도덕법칙은 당위이자 의무를 지시 ⇒ 명령의 형태 띠
- **가언(조건적)명법**: "만약 네가 A를 원한다면, 너는 B를 행해야 한다!"
- A는 B의 전제가 되는 상위의 목표
- A의 예: 건강, 부, 명예, 행복 등
- 도덕법칙이 가언명법이라면? ⇒ 도덕법칙은 '우리의 온갖 욕구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것인지를 가르치는 전략적 지침'

2-4) 도덕법칙과 정언명법 (7/7)

- 도덕의 최고 원리인 도덕법칙은 가언명법 아닌 **정언(무조건적)명법**이어야 함
- 정언명법의 특징: 조건절(if 절), 즉 전제된 상위의 목적이 없음
- 도덕적 명령은 도덕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명령

2-5) 자율

- (의지의) **자유**: 나의 의지가 어떤 외적 세력(우리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, 자기의 타고난 경향성)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것
- 도덕법칙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과하는 것 ⇒ 타율이 아닌 **자율**
- 자기의 경향성(본능적 욕구, 자기애 등)에 따르는 행위? → 자유로운 행위 아님
- 자율이란 **현상적 자아**(도덕법칙을 따라야 하는 나)와 **본체적 자아**(도덕법칙을 수립·부과하는 나) 사이의 관계(후자가 전자를 통제함)를 나타내는 개념

2-6) 인격과 인간 존엄성 (1/2)

- **인격(Person)**: 본체적 주체의 담지자
- “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법 이외에는 어떠한 법에도 복종하지 않는 이성적 존재자의 **존엄성**이라는 이념”
- 존엄(Würde)이란 단지 교환적 가치(가격)를 지닌 존재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 대해서 쓰이는 표현
- 따라서 존엄한 존재(인격)는 언제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함
- 인간은 신성의 씨앗을 지닌 존재

2-6) 인격과 인간 존엄성 (2/2)

- “인간은 분명히 신성하지 않으나, 그의 인격 속의 인간성은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.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의욕하고 또 우리가 지배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. 오직 인간,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있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. 즉 그는 도덕법칙의 주체이며, 도덕법칙은 그의 자유가 지닌 자율로 말미암아 신성한 것이다.”
(<실천이성비판>, A156)
- “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 안의 인간성을 결코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,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하도록 행위하라.” ⇒ 두 번째 정언명령

3-1) 칸트 윤리에 대한 전형적 오해 (1/2)

1) 칸트 윤리는 단지 형식적이다!

- 칸트의 도덕법칙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구체적인 행위의 규칙들을 제공해줄 수 없다.
- 단지 공허하고, 빈약하고, 형식적이다.

⇒ 칸트의 대답:

“형식적임을 잘 알고 있다. 그게 바로 장점!”

- 도덕법칙은 도덕의 최고 원리, 즉 '어떤 준칙이 도덕적인지 도덕적이지 아닌지'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
- 우리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를 스스로 검사해보라는 것
- 우리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을 판단하는 데 공정성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

3-1) 칸트 윤리에 대한 전형적 오해 (2/2)

- ▶ **보편화 가능성** 검사는 **소극적** 방식으로만 작동함
 - 이 검사를 **통과하지 못한** 준칙 ⇒ **비도덕적!**
 - 이 검사를 **통과한** 준칙 ⇒ 도덕적? 단지 **합법적!**
 - 도덕적 감정(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)이 동반되어야 참된 도덕성 획득
 - '도덕적' 행위란 오로지 '의무로부터', 즉 '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' 비롯된 행위
- ▶ 도덕법칙의 **소극적** 적용 방식도 의미가 크다!
“만일 올바른 도덕 판단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 없다면, 도덕 자체가 온갖 종류의 타락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.”
(<도덕형이상학 정초>, BA X)

3-2) 칸트 윤리에 대한 전형적 오해 (1/2)

2) 칸트 윤리는 결과를 무시한다!

- 칸트는 선의지를 강조하며 동기에만 주목할 뿐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다.
- '비현실적'이며 '부도덕한' 윤리이다.

⇒ 칸트의 대답:

- 결과를 무시하는 윤리란 있을 수 없음. 행위란 '결과를 낳는것'
- 문제는 동기냐 결과냐가 아니라, 행위자가 '어떤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'
- '의지'란 현실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음

3-2) 칸트 윤리에 대한 전형적 오해 (2/2)

▶ '의지'만이 '도덕적' 판단의 대상

- 물론 의지의 실현은 신체적, 정신적, 경제적 여건 등의 한계로 원래의 목적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
- 도덕성은 행위 주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, 즉 행위자에게 가능한 것하고만 관련됨
-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 같은 행위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근거가 되는 의지, 즉 행위의 **준칙**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
-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조건들에 대해서도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(공리주의 같은) 윤리는 '비인간적'(일종의 오류)

3-3) 칸트 윤리에 대한 전형적 오해 (1/2)

3) 칸트 윤리는 인간의 경향성과 행복을 도외시한다!

- 너무 엄격한 도덕은 도덕의 실현 가능성을 제약함
- 칸트의 추상적 주지주의(감정 무시)는 도덕교육에서 중요한 정서의 함양을 소홀히 할 수 있음

⇒ 칸트의 대답:

“의무 수행에 있어 경향성의 충족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행복을 무시한 적 없다!”

- 경향성이나 행복의 동기는 ‘무엇이 의무인가’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

3-3) 칸트 윤리에 대한 전형적 오해 (2/2)

▶ 도덕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행복 추구는 좋은 일(때로는 의무)!

“ ‘행복원리’ 와 ‘도덕원리’ 를 이같이 구별하는 것은, 그렇다고 해서 곧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. 순수한 실천이성은, 사람이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해야 할 것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다. 오직 의무가 문제일 때,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 할 뿐이다. 자기의 행복에 마음을 쓰는 일은, 어떤 점에서 ‘의무’ 이기도 하다. 일부는 행복—숙련 · 건강 · 부 등—이 그의 의무를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요, 다른 일부는 행복이 결여되면 (가령 가난하면) 자기의 의무에 어긋나게 하는 유혹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자기의 행복만을 촉진하는 것은, 결코 직접적으로 의무일 수 없으며, 더구나 모든 의무의 원리일 수는 없다.” (『실천이성비판』, A166 이하)

3-4) 칸트 윤리에 대한 전형적 오해 (1/2)

4) 칸트 윤리는 지나치게 엄격하다!

- 너무 이상적이고,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아 평범한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렵다

⇒ 칸트의 대답:

“도덕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비판일 뿐!”

- 도덕(특히 도덕의 최고 원리)이란 원래 **현실의 사실**에 근거한 것이 아닌 **당위**이자 **이상**임
- 지금 눈앞의 모든 사람이 ‘자신에게 유익하다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해도 좋다’고 생각한다고 해서 거짓말이 선하다거나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

3-4) 칸트 윤리에 대한 전형적 오해 (2/2)

▶ 이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?

-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한, 현실적 난관이 있더라도 추구해야 하는 것
- 자기가 놓여 있는 현실의 자리에서 그 이상을 향해 한 발자국씩 전진해야
- 만일 '현실적이지 않다'는 이유로 이상의 지표를 버린다면, 우리 현실은 급전직하(急轉直下) 도덕적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
- 현실이 이만큼이나마 유지되는 것도 실은 이상 덕분

3-4)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?

- ▶ 칸트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, 위의 물음은 **사이비 물음(pseudo question)**
 - 정언명법을 가언명법으로 바꾸려는 물음
 - 무조건적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(그 자체가 궁극 목적으로서 달리 이유를 댈 수 없는 것)에 대해서 (마치 그것을 행하는 어떤 다른 이유 내지 상위의 목적이라도 있는 것처럼) 조건을 묻고 있는 것
 - 도덕은 원래 당위이며, 현실이 아닌 이상 (이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은 넌센스)
 - 우리가 할 일은 ‘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도덕과 무관한 이유’를 찾을 것이 아니라, 도덕적 가치의 왕국을 향해 그냥 한 발 내딛는 것

3-5) 칸트 윤리에 대한 전형적 오해 (1/3)

5) 칸트 윤리는 두 개의 절대적인 도덕 원칙이 상충할 때 해결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한다!

▶ 칸트의 주장

“인간애로부터 거짓말할 사이비 권리에 관하여”

- ‘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나의 친구를 쫓는 악한 앞에 서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이다.’
- ‘진실을 말할 의무를 다하여 결과적으로 친구가 살해되어도 내게는 잘못이 없다.’

▶ 이것은 부도덕한 주장 아닌가?

3-5) 칸트 윤리에 대한 전형적 오해 (2/3)

▶ 인간 존엄성을 그의 정언명법의 핵심 정신으로 삼고 있는 칸트가 과연 '거짓말하지 말라'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인간 생명이 희생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을까?

⇒ 이 경우 칸트의 도덕법칙을 적용하자면, '나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.'라는 준칙을 우리가 과연 보편화할 수 있는지 검사해야 함

⇒ 이 준칙은 아마도 보편화가능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을 것

3-5) 칸트 윤리에 대한 전형적 오해 (3/3)

▶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칸트의 진의(眞意):

칸트의 위의 말은 '진실을 말하는 것은 오직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의무이다.'라는 **콩스탕**의 주장에 대한 칸트의 반론 맥락에서 이해해야

⇒ 칸트의 입장: '살인자의 위협에 쫓기는 친구라 할 지라도 나에게 거짓말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!'

(실제 현실에서 원칙이 유보되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고 해서, 원칙 자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.

왜냐하면 진실성의 의무는 사회계약의 토대가 되는 형식적 원칙의 하나이기 때문)

3-5) 칸트 윤리의 보완: 현대의 직관주의

- ▶ 로스(D. Ross): **조건부 의무**(*prima facie* duty)
 - **계약 이행**의 의무: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
 - **선행**의 의무: 가능한 한 선을 극대화해야 한다
 - **악행 금지**의 의무: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
 - **정의**의 의무: 공정해야 한다

- ▶ 진실을 말한다면 무고한 사람이 악한에 의해 살해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, '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'는 원칙과 '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'는 원칙이 충돌할 경우 ⇒
전자인 **악행 금지**의 원칙에 의해 후자의 원칙은 유보되어야 함 (직관적으로 볼 때 전자가 더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)

복종

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
나는 복종을 좋아하어요
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
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
복종하고 싶은 데 복종하는 것은
아름다운 자유보다 달금합니다.
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.

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
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.
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
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.